

# “그리스도의 사랑 본받아 환우 정성다해 섬길터”

## 권창영 제23대 예수병원장 취임식... 최고수준 의료서비스제공 다짐

예수병원은 14일 오전 7시50분 4층 예배실에서 예수병원 제23대 권창영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예수병원 병원장 취임식은 정선범 원목실장의 사회로 예수병원 유지재단 총무이사 이종학 목사(제일교회)의 기도와 이사 김성수 목사(고수교회)의 성경봉독과 예수병원 합창단의 찬양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사장 박재용 목사(응포교회)의 설교, 이사 이병우 목사(예은교회)의 축사, 권창영 병원장의 인사말과 이사 성경경 목사(금광교회)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박재용 이사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의료선교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예수병원이 권창영 병원장의 지난 임기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음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권창영 병원장이 예수 사랑에 의지해 기도와 헌신으로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병원장이 되길 바란다.”며 병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권창영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최근 무한경쟁의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되는 의료 현실 속에서 전 직원의 동참으로 예수병원의 발전을 이루어 하나같이 영광을 드리고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랑을 다하겠다”며 “예수병원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환우를 정성으로 섬기며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0년 6월에 전주 예수병원 병원에 취임 한 권창영 병원장은 2013



권창영 병원장은 6월 10일부터 3년간의 새 임기를 시작했다. 3년 임기에 연임했으며 지난 5월에 예수병원 이사회에서 차기 병원장으로 선임돼 6월 10일부터 3년간의 새 임기를 시작했다. /박종우 기자



## 전주 동산동 한공대회

### 주민자치회 후원으로 어르신 100여명 참가

동산동(동장 정용환)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대기)후원을 받아 관내 경로당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공대회를 개최했다. 한공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공도의 장점이 접목된 대표적 생활체육 종목으로 양손 스트레칭과 좌·우뇌 활동을 증진시켜 몸의 좌우균형 유지, 치매와 오십견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 구분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건강 증진은 물론 소외와 고독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간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정용환 동산동장은 “건강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한공대회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중화산동 행복한세상 찜질방 목욕쿠폰 200장 전달

중화산동 소재 행복한세상 찜질방(대표 임정희)에서는 14일 중화산동(동장 윤석경) 주민자치위원회에 목욕 쿠폰 200장(1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행복한 세상 찜질방 임정희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별도의 추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쿠폰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휴식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덕진구,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생활복지과는 14일 제2권역 인취·2·3동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생활복지과는 참석한 12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복지, 법률, 의료 분야 전문가와 1대1 전문상담도 진행했다. 생활복지과 송재욱 과장은 “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횟수가 거듭 될수록 더 알차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마늘캐기 봉사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직원 20여명은 14일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심모씨 농가를 찾아가 마늘밭 300여평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마늘캐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장주 심모씨는 요즘 농촌에는 고령화 및 농촌인구의 감소로 농번기에 일손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손이 모자라 마늘 캐는 시기가 늦어 애타고 있었는데 정읍지사에서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어 시기가 늦었으나 마늘 캐는 작업을 도와주어 한 시름 덜어 다고 감사의 마음을 지어 보이며 지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공사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정 지사장은 “일손이 모자라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찾아 나눔경영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겠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군산 하랑유치원, 전북 119소방동요대회 대상 수상

군산하랑유치원 은새미로합창단(지도교사 이재민)이 지난 10일 전라북도 청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5회 전라북도 119소방동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119소방동요대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로 하여금 소방동요를 통해 안전을 배우고 여러 사람이 함께 널리 불리워지게 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날 도내 10개 시·군 대표 10개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하랑유치원은 소방동요 ‘타입머신은 없어’를 불러 대상 및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재민 지도교사는 “119소방동요를 함께 노래하고 호흡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군산하랑유치원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군산=문정근 기자

##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응급환자 신속구조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가 14일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응급환자를 발견, 신속한 구조조치로 생명을 구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한 주인공은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과호영 경위와 최계훈, 김중수 경사. 고속도로 순찰에 나선 이들은 이날 오전 8시20분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119km 지점 갓길에서 고장차량을 발견, 사고예방을 위해 후방 안전조치 중 반대편 차선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구조에 나섰다. 가장 먼저 응급환자를 발견한 김중수 경사가 신속히 중앙분리대를 넘어 화물차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119 구급대를 불렀다. 공황상태가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이날 운전 중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으로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구조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인진수기자



## 덕진소방서 장만준 소방위, 전기안전공사 감사패 받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유우중)는 장만준 소방위가 지난 2009년부터 수행한 각종 화재피해 조사업무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소방위 장만준은 지난 3월 27일 저녁 9시58분경 전주시 장갑공장 화재를 비롯해 총 3000여건의 각종 화재현장에 출동 화재피해 조사 및 원인파악 등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절감에 기여하였다. 유우중 덕진소방서장은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문어발식 전기코드사용 금지 등 전기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인진수기자

## 순안아이어린이집 원생들 정읍경찰서 견학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14일 정읍경찰서를 견학 온 순안아이 어린이집 원생 50명이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112신고 요령 등 다채로운 교육 등 경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전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정읍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핀 후 손을 들고 건너기 등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과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무전기 체험을 비롯해 올바른 112 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이번에 방문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등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김주원 서장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며,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행복해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부안경찰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벌여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여성청소년계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지역경찰 등이 터미널 시거리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노인학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신고를 활성화하려고 6월 한 달 간 운영중인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플래카드와 전 단지를 배부하며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노인학대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및 노인학대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목격했을 경우 관련기관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현신 서장은 노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려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국민 관심 유도 및 사회 전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 임실군, 퇴직 공무원 김진영씨 국도대장정 완주

임실군 삼계면사무소 민원담당으로 퇴직한 김진영씨(56)가 내 고향 발전을 기원하며 실시한 국도대장정을 무사히 마쳐 지역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전남 해남을 출발해 목표 무안 천안 김포를 거쳐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까지 약 18일간의 국도대장정을 무사히 마쳤다. 간단한 취사도구와 여분의 옷 한 벌만 들고 길을 나선 김씨는 고향 입실 발전과 군민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800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종주했다. 하루 10시간, 40km가 넘는 거리를 운동화 한 켤레로 무더위와 비바람과 싸워가며 종주를 마친 김씨는 “30여년의 공직생활과 50년의 인생을 돌아보고 알게 모르게 지은 과오에 대한 자책감을 씻어내며, 내고향 입실의 지역발전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40km이상씩 걸어 힘들 때도 많았지만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지인들의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됐다.”고 회고했다. /임실=진홍영기자

<b>전주매일</b>			
www.jmaeil.com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116		우편번호 56000	
부회장 김승근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입문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85-418	종인지사 010-9885-674	남원지사 632-3986	고창지사 566-6998
삼천지사 010-2333-499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산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8-3054
호치지사 010-6855-9955	팔복지사 255-688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9-376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9-0444	장수지사 010-3822-8197
	익산지사 859-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